

제목 : 우리 신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내조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53세 유연서 저의 신랑은 43세 박종범입니다. 결혼 18년차입니다. 저의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저의 인생을 걸었고 내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은 신랑에 빠져서 잃어버리고 오직 신랑바라기가 되었죠. 노래가사가 생각나네요.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롭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희는 미용학원에서 만나 결혼했지요.

저는 내조의 여왕은 저라고 생각 할 정도로 내조가 시작되었죠. 신랑은 미용학원 다니면서 메이크업 학원도 동시에 다녔죠. 신랑이 코디가 꿈이라고 말해서 제가 신랑의 메이크업 모델도 학교에 가서 되어주었죠.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반에서 짝궁 모델을 해주지 않는다고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남자라서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학교에 가서 모델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메이크업을 신랑한테 받아봤지만 그렇게 소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주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신랑이 원하니까 열심히 도왔죠. 저는 신랑한테 “너의 얼굴에 자주 연습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잘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시험까지 눈썹을 너무 못 그려서 모델해주기 전에 제가 살짝 그려서 우리 신랑이 아이새도우로 채우는 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지요. 메이크업 학원에서는 분장도 배웠는데 작품으로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를 했지요. 그때 저의 신랑은 드래곤볼에 빠져있었을 때였죠. 머리에 다는 장식도 스티로폼으로 신랑이 직접 만들고 분장도 모델에 시킨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티로폼을 만든 머리 장식을 직접 봤을 때는 참 손재주가 없구나를 알았죠. 그 때 모델은 신랑이 알던 유학생 친구한테 밥 사주고 부탁했지요. 어쨌든 졸업장을 받았지요.

미용학원의 수업시간을 채우면 캐나다에서는 미용시험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신랑이 선배이지만 수업일수가 제가 조금 빠르게 많아져 제가 먼저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6시간 안에 실기와 필기시험을 보기는 무리였지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매일 8시간을 공부했지요. 뼈 구조까지 배우고 엄청 전 문용어도 많고 해서 어려웠지요. 현지인도 떨어지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도 신랑이 시험에 붙으면 업고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팔꿈치에 피가 나도록 옆드려서 공부했지요. 어려서부터 공부는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열공을 했지요. 드디어 시험에 붙어서 학원장이 허그까지 해주면서 대견해 해 주더라고요. 밴쿠버에서는 유명한 미용학원이죠. 학원비도 싸고 학원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참! 원장과 선생님은 부부사이죠. 연상연하였고 히치하이킹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글까지도 다른 길로 갔네요.

어쨌든 시험에 합격해도 업고 다닌다던 사람은 간데없고 저는 시험에 먼저 합격해서 두 달 뒤에 시험 보는 신랑을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 주었죠.

그래서 신랑은 쉬엄쉬엄 시험공부를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시험요령과 요점을 짚어주었죠.

캐나다든 마네킹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직접 모델을 데려가 시험을 봐야하는데 신랑이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사람이 많아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머리도 자르고 염색에 파마까지 하면서 필기시험도 중간 중간에 보기 때문이에요.

돈을 준다고 누구나 선뜻 해주지 않죠.

또 외국 사람들은 파마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짧게 잘라서 파마를 하니 나이 드신 여자만 모델을 응해주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되겠다 싶어서 신랑을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얼마를 모델비로 드릴 것이고 시험연습때는 얼마를 드릴 것이고 시험날은 얼마를 드릴 것이고 또 공손히 예의 바르게 진정성있게 간곡히 부탁하라고 시켰죠. 몇 분에게 하실 수 있겠냐고 시도 해보면서 마침내 모델을 해주시겠다는 사람을 만났지요.

드디어 신랑도 시험에 합격을 했지요.

그랬더니 제가 시험에 합격 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기뻐하고 유세를 떨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이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만 있다고 취직이 되질 않았고 실력도 별로 없어 또 다른 벽을 만났지요. 어떡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저의 신랑은 걸뭇만 들어서 가위돌리기 빗 돌리기 그런 것에 더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고급반을 가르치는 학원을 다니자고 하고 원장님한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고 해서 한 곳을 소개받았죠. 영국에 있는 비달사순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을 신랑과 둘이 열심히 다녔죠. 그 학원도 졸업을 했지요. 그런데도 실력이 늘지 않아 실전에 있는 훌륭한 미용사를 소개받았죠. 김과 애쉬라는 분이었고 한사람은 영국분이었죠. 그리고 한분은 인도계인데 영국의 비달사순에서 배운 사람이었죠. 그분들은 머리를 정말 잘했었지요. 선생님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너무 행복했지요. 그런데 모델을 직접 데려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생인 저희에겐 모델을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고민 고민하다가 현지의 인터넷에 모델을 구한다고 광고를 내고 특히 돈을 아껴 쓰는 유학생에게 공짜머리는 통했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저희가 사는 곳과 미용실이 너무 멀어서 모델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하는게 문제라서 중고차를 3400불을 주고 사서 다녔지요.

우리는 열심히 태워가서 머리해주고 태워다 주고 아주 바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미용실에 취직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둘이해서 600불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배우면서 돈도 버는데 너무 좋았지만 손님의 머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질 않고 파마로드 씻고 샴푸만 하고 레게머리 등만 해서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까해서 또 고민하게 되었지요.

신랑은 원장이 머리를 자르고 있으면 가서 서있고 그래야 하는데 손님의자에 다리 쪽 뻗고 앉아서 그것도 머리도 빠닥하게 건방진 스타일로 앉아서 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걱정

을 해서 저는 외국 미용실에 헤어렌트를 해서 유학생 상대로해서 싸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신랑한테 제안해서 집근처 미용실을 뚫어서 헤어렌트로 시작했죠. 나무를 사서 한글로 글씨를 써서 한국사람은 볼 수 있도록 간판을 만들어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기계로 남자머리를 배우질 않아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바리깡 쓰는 것이 능숙하지 않았고 파마를 한국식으로 못해서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쳤죠.

그래도 죽어라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실력을 더 키워야겠다고 또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죠. 저희 헤어렌트 미용실에 오던 손님이 다른 헤어렌트 미용실에 오신거예요. 그 손님이 다른 미용실인줄 알고 온 것이 저희가 있는 곳이라 놀랐나봐요. 그 손님은 마음에 안드는 머리를 그때도 했고 그 전에도 자의반 타의반 했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가 미안해 했던 분들도 많았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았네요.

참! 어떤 손님 한분도 생각나네요.

바리깡으로 밀다가 실수해서 너무나 짧게 잘라 버린 그 손님이 일이 끝나고 신랑과 한 잔하러 나갔는데 저 멀리서 전화통화 하면서 술 집 앞에서 서 있는 손님의 뒷모습에 신랑과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빵!! 터져버렸죠. 낮에 제가 한 손님이었던 거죠. 어찌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게 웃음이 나와 버렸죠. 물론 그 손님은 저희를 못 보았지요.

그래서 손님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늘겠구나 하면서 저희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돈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서 가게를 오픈했지요. 그런데 캐나다는 공사 중간 중간에 허가 내는 것도 많아 힘들게 힘들게 알아보면서 허가를 받아냈죠. 손님 중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 했다고 자랑했더니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오픈해서는 손님이 없었지만 점점 손님이 많아져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일을 했고 물론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했죠. 물론 저녁은 11시 정도 되야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그 때는 행복하고 또 행복했지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많은 힘든 일은 있었지만 항상 가장 힘든 일은 손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신랑 때문이었죠. 신랑이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그날도 점심때가 지났는데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배고파 죽겠다”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이 그 때였으면 “나도 배고파” 했을 텐데 저는 그때도 아까워서 신랑을 못 볼 정도로 신랑을 좋아했지요.

이런 적도 있어요.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점쟁이한테 점을 보는데 제가 신랑이 아까워서 쳐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잘 맞추는 사람이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참 그리고 미용실 하면서 염색약이나 파마약을 사러갈 때 차가 여러번 퍼져 신랑이 속상하고 열받아 해서 겸사겸사 한국에 나가 모든 적금, 모든 보험까지 다 털어서 돈을 준비해오고 번 돈 까지 다 모아 돈을 만들어 새 차를 샀어요. 그것도 애국한다고 한국차로 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은 오픈카(벤츠)를 타고 싶었더라고요. 그 때는 몰랐어요.

참 다시 내조이야기를 하지요

신랑을 미용사로 성공시키고 싶어서 더 미용을 공부해보자고 영국에 가자고 제안했지요. 밤에는 알바를 하고요.

그러나 신랑은 반대를 했지요. 손님도 외국사람 반 한국사람 반 또 단골도 많아졌는데 안정된 삶을 원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시부모님이 신랑이 대학을 졸업했으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인성을 쌓을 수 있게 철학과를 가라고 했더니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것을 시부모님이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솔직히 경제에 대해 우리 신랑은 1도 몰라요.

공부를 하는데 미용실까지 해서 엄청 안쓰러웠죠. 그때는 우리 신랑이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 하지만 영어로 전문수업을 듣기에는 어려웠었나 봐요. 어떡하지 하길래 제가 그러면 수업을 녹음 해와서 다시 한 번 듣고 메모를 해보라고 했지요.

일이 끝나고 오전에 수업을 녹음한 것을 다시 듣는데 공부만 하면은 우리 신랑은 자더라고요. 그것도 침 까지 흘리면서요.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신랑의 습관이었던더라고요.

잘 때마다 깨우면서 공부시키느라 안쓰럽기도 했지만 열심히 깨워서 공부를 시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루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고개만 살짝 들 수 있고 담이 왔는지 어졌는지 그래서 저는 꿈쩍도 못하고 신랑이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몸에 마비가 왔는지 어졌는지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고 화장실도 신랑이 일으켜 줘야 갈 수 있고 물도 혼자서는 못 마셨지요.

그런데 그때 신랑한테 배고프다고 하니까 라면을 끓여다 주면서 유세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신랑한테 더 미안했었고 빨리 어떻게 몸이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신랑은 그때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제가 신랑이 무심한 줄도 모르고 살았었나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등쪽 날개 안쪽의 쪽지가 하루에도 많게는 몇 번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어 마사지를 받아야만 통증이 사라지곤 하지요. 아마 팔을 들고 일을 해서 그런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도 병원을 몇 번이나 가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몸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신랑도 저도 기술도 생각보다 많이 늘지도 않고 저는 우울증도 오고 신랑과 저의 머리하는 성향도 너무 달라 부딪히고 해서 - 예를 들어 저는 신랑을 머리 감길 때 한번 느껴봐라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머리를 기분 좋고 시원해 할까 하는지 등등 - 우리는 미용실도 접고 한국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신랑과 의논했지요.

신랑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처음은 저희가 사는 동네에 A4용지에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써서 아파트에도 광고를 해서 여기저기 붙이고 엄마 몇 명이 초등학생 몇 명을 데리고 왔고 물론 그것도 제가 전단지 붙이러 다녔죠. 저의 신랑은 첫 수

업을 했지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애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니 엄마들이 애들보고 가지 말라고 했나봐요.

그 말은 잘 못 가르친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신랑한테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보라고 하니까 신랑은 그냥 잘난 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여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잘 가르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지요.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신랑한테 연습도 해 보라고 조언했죠. 그렇게 해서 신랑은 학원강사를 꿈꾸며 면접을 여기저기 봤지만 취직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원어민 강사도 많고 교포2세(같은 동양인이지만 영어는 원어민 즉, 그쪽에서 태어난 한국사람)들도 많아 유학생들이 영어 잘 하는 수준과는 달랐죠.

어쨌든 신랑은 영어마을 취직해서 1년 정도 다녔죠. 그런데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희 생활비가 300만원 들어가는데 신랑은 150만원 벌어들인데 그나마 이것저것 떼면 130만원 가져오길래 제가 뭘가를 해야 해서 주식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주식을 시작해서 800만원도 벌긴 했지만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팔아볼까 알아 봤더니 그것도 어렵고 또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두었죠.

무엇을 해서 생활비를 벌까 봤더니 앞으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봉을 배워야겠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선까지 배우려고 수선배우는 학원에 갔는데 수선을 배우기는 하는데 3개월 동안 일자 ‘ㄱ’자 ‘ㄴ’자 ‘ㄹ’자 그것만 연습하라고 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만두었죠. 수선학원을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마스크 공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알아봤는데 마스크도 특허를 내야하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패션 마스크하고는 좀 다르고 해서 그만 두었지요. 참 신랑이 영어 가르쳐서 벌어들인 돈은 너무 가까워서 신랑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저금을 따로 해놓고 몇 년 동안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신랑의 앞길과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저는 또 무엇인가를 신랑한테 제시해야 했지요. 영어학원을 우리가 직접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막내 남동생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지요. 물론 저도 열심히 알아보다 필리핀에서 영어학원을 내는 것을 알게 되어 필리핀에다가 학원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신랑한테 제가 물어 봤죠
“자기야 미국에 가서 닭 잡으면서 살 자신있어?”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요.

진짜 모든 재산을 걸고 또 은행에서 돈도 많이 빌려도 될까 말까 하는 큰돈이 들어가기에 할 수없이 진짜 진짜 만약의 경우에 마음의 다짐을 저의 신랑과 물론 제 자신에게 확인을 받았죠.

그렇지만 학원을 오픈도 못하고 돈만 쓰고 일 년 만에 돌아왔죠.
저는 또 신랑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래요.
아니 진작에 솔직히 말을 하지 왜 말을 안했냐고 했더니 신랑이 어렸을 때 집이 어려운 적이

있어서.

빨간 딱지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저런 사연이 있었던대라고요.

그 때부터 돈이 좀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장사를 시작했죠. 장사할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어 바로 밑에 남동생이 부산에서 맥주집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부산에 가서 가게를 오픈 해야겠다 생각 해서 부산으로 가서 다대포에 자리를 잡았죠. 높은 곳에 월세를 얻고 중고차를 구입했지요.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죠. 주위에 떡도 돌리고 오픈행사 하는 곳에 부탁해 행사도 했는데 손님이 별로없었지요.

제가 직접 전단지를 들고 돌렸지만 전단지를 받지 않아서 비닐봉지에 사탕을 담아 한 주먹씩 드려보기도 하면서 거리에서 혼자 추위에 떨면서 전단지를 6개월 정도를 매일 뿌렸더니 점차적으로 손님이 많아졌지요.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한 것은 가게는 80평이 넘는 큰 가게에 손님은 오지 않고 신랑은 손님이 많아있어야 할 곳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숨을 쉬고 있어 그걸 보고 있자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에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장사도 잘 되서 빚도 많이 갚고 다 좋았는데 물론 그사이에서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인생이 좀 힘든 것을 알기에 그런 것들은 진짜 새발의 피였지요. 아! 그때 돈을 벌어서 신랑이 결혼할 때 120불 주고 산 반지 대신에 다이아 반지와 시계도 사줬지요. 그런데 어떤 힘든 일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신랑이 눈을 여기 저기 돌리는데 물론 옛날부터 그랬지만 더욱더 많아져서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나이가 10살 차이나는 것도 신랑한테는 자랑스럽고 내세울 수 없었겠지만 사실 저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는 내성적인 트리플A 형인데 사랑하나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 한 끈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게 저의 인생이 너무 싫었고 신랑이 설거지 하는 것을 보면서 고생을 너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저도 컵을 너무 많이 닦다보니 이번에는 손목까지 나가서 일이 너무 힘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것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도중에 쓰러져 119에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마음과 몸이 힘들었었지요.

또 신랑이 저와 대화 도중에 장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서 기가 막혔죠. 그 말은 제가 가게의 주인이고 제가하는 일이고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도 또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신랑한테 맞는 일을 해야 해서 이 사람이랑 살면서 가끔 점을 보러 간 다거나 철학원을 갈 때마다 신랑이 연예인 팔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수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지요. 가수는 어렸을 때 저의 꿈이었기도 해서 일석이조라 생각해서 신랑이랑 같이 가수가 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래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노래방에 가면 저는

노래 한곡을 부르지 않아도 신량은 2시간 까지도 혼자 노래할 정도로 노래를 하길래 저는 신량이 노래를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 듀엣을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희는 노래실력이 둘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에게 일 년 넘게 발성만 하는 그 정도로 실력이 없어 저는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3년 동안 노래학원을 장사하면서 다녔지요 그리고 댄스학원도요. 신량과 같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장소를 자비로 빌려서 첫 공연 1시간짜리를 하게 되었죠. 창피하고 떨리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된 사연을 <KBS 노래가 좋아>에 보냈는데 선택이 되어서 출연하는 영광을 얻었죠. 저희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열심히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고 여러 기획사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오디션 보러 오라는 곳도 한 군데도 없고 공짜공연도 구하기도 힘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시도해보고 또 저희 부부에 관한 노래(님부부) 가사도 제가 직접 썼어요. 사실 저희가 노래는 좀 약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TV는 섭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7번이나 나갔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신량은 또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아마 저의 갱년기랑 안 좋은 일들이 겹쳐 온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요즘은 신량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매일 울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열심히 발성 연습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아서 저는 매를 들었지요.

신량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신량은 때려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신량은 어제 저와 싸우고 집을 나가 오늘 점심 때 벨을 누르길래 문을 안 열어 주고 있지요.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조를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파도와 같다는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신량이 한 것 중에 제 생각엔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습만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량이 안 따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량이 연습하는 것으로 싸우느라 저의 노래연습에도 신경도 못 쓰고.

저는 요즘 이 말에 완전 공감하고 있지요.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이제는 화려하지 않은 풀잎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가 되었어요. “아! 행복하다” 라고요. 행복이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저희는 “유메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이름은 존경하는 “키메라”라는 가수 이름에 저의 성을 붙여 “유메라”라고 지었지요.

신량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고민이 해결 될 수 있

고 저의 인생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의견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주저리주저리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4311-5187